시민속으로 2017 / 9월 2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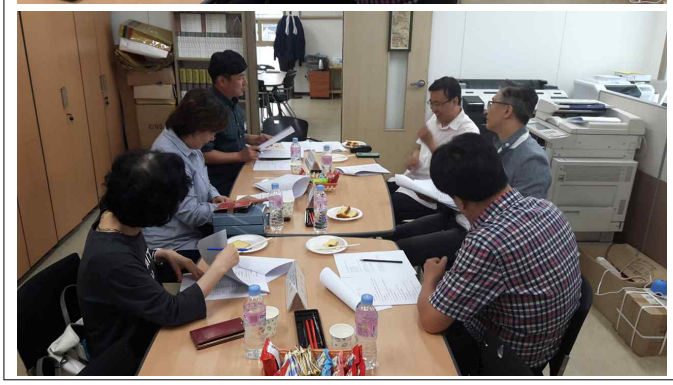
■ 연구원 주요일정

○ 09월 11일(月) :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7차 운영위원회 실시

- 날짜 : 2017.09.08(金) 오후 5시 / 장소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의실
- 안건 :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 진행 건
- 내용 : 연구원 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간 사업 경과보고를 진행한 후 9월 16일로 예정된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 관련 사항을 논의·결정하였습니다.



○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 안내 (9월 16일)**

지난 학술대회와 공동사업인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가 **9월 16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답사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광복회 전북지부와 우리 연구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 내 용 (9월 16일)		비 고
시 간	일 정	
08:40-09:00	집결 및 인원파악	9:00 출발
09:00-10:00	전주 - 정읍 태인 이동 / 버스 특강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616-1
10:00-11:00	태인 만세운동 기념지 답사	
11:00-11:40	일광기념관 이동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77-15
11:40-12:30	일광기념관 견학 및 고창 3·1운동 유적지 답사	고창읍성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전북지역 3·1운동 특강	이강안(광복회 전북지부장)
15:30-17:00	전주 이동 및 해산	

○ **조광 前 원장님 전주대학교 디아스포라 강좌 진행 - "안중근 가의 디아스포라"**

<"안중근 가문의 가족사는 식민지 시기 이래 우리 민족이 걸었던 삶의 한 사례이며,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8월 31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강좌의 첫 번째 강사로 조광 前 원장님(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께서 맡아주셨으며, "안중근 가의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안중근 의사의 가족사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디아스포라 강좌 안내"**

- 주 제 : 디아스포라의 삶 - 강 사 : 서경식(일본 도쿄경제대 교수)
- 장 소 : 전주대학교 진리관 307호 - 시 간 : 2017년 9월 14일(목) 16시~18시

: 디아스포라 강좌는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생은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오셔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상시 모집 중>**

-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여러 회원들이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를 모셨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권용호"** 님, 전북 완주에 살고 계시는 **"최운성"** 님 입니다. 연구원에서 정기적인 사업을 통해 더욱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자소개

맹호연의 자는 역시 호연(浩然)으로, 지금의 호북성(湖北省)에 해당하는 양주(襄州)의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후대에 '맹양양(孟襄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가계는 자세하지 않은데, 양양의 남쪽에 장원이 있어 그의 가족이 이곳에 살았다. 그에게는 세연(洗然)이란 형에다가 형(馨)과 악(諤)이란 두 동생이 있었다.

▌작　품

留別王侍御維(류별왕시어유)　　시어 왕유에게 헤어지며 남긴 시

寂寂竟何待(적적경하대)　허망한 신세가 끝내 무얼 기다릴까
朝朝空自歸(조조공자귀)　아침이면 아침마다 하릴없이 홀로 돌아오는데
欲尋芳草去(욕심방초거)　향긋한 풀 찾아 떠나려함에
惜與故人違(석여고인위)　옛 벗과 헤어짐이 애석하여라
當路誰相假(당로수상가)　권력자들 중에 누가 나를 끌어주었던가
知音世所稀(지음세소희)　진정 나를 알아주는 친구 세상에는 드무나니
祗應守寂寞(지응수적막)　다만 적막한 산천이나 지키고자
還掩故園扉(환엄고원비)　고향으로 돌아가 사립문을 닫으려 하네

▌감　상

734년 다시 벼슬을 구하러 장안에 온 맹호연은 또다시 절망에 빠져, 추운 겨울날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서울을 떠나는 맹호연의 서글픈 심사는 「유별왕시어유(留別王侍御維)」란 시에 또렷하게 나타난다.

■ 역사속의 오늘

○ 태풍 “사라”가 불러 온 엑소더스 - 1959년 9월 17일

아브라함 아내 이름이 ‘사라’였던가? 태풍이 불어오고 그 기세가 평균 이상인 경우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태풍 ‘사라’호다. '사라'호는 1959년 9월 17일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전설 속의 태풍이다. 1959년 9월 17일은 추석이었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여전했던 시절의 명절이었지만 가족들이 모여들고 없는 돈 추렴해서 제상을 차릴 채비들로 바빴던 때였다. 9월 11일 발생한 사라 호 태풍은 북상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렸지만 중앙관상대는 ‘사라’호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약화는 고사하고 되레 905헥토파스칼의 초대형 태풍으로 명절 맞은 한반도를 강타했다.

태풍은 제주도를 습격한 다음 통영 앞바다로 상륙해서 호미곶으로 빠져나갔다. 거제도 앞바다의 절경이었던 신랑신부 촛대바위 가운데 신부 촛대바위가 태풍의 칼바람에 동강이 난 것을 시작으로, 부산 산복도로의 판자집들 태반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건 경북이었다. 홍수 때문에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진 곳도 즐비했고 가옥이 부서진 정도는 피해 축에 들지 도 못했다. 전국적으로 9백여명이 죽었고 이재민은 100여만명에 이르렀다.

경북 울진 성류굴 앞을 흐르는 왕피천이 범람했고 인근 마을을 휩쓸어 버렸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울진군 근남면이었다. 논이고 밭이고 모든 것이 흙탕물로 뒤덮였고 물이 빠진 뒤는 황무지로 변해 버렸다. 망연자실한 울진군 근남면 사람들에게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철원으로 오라"는 제의를 했다.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이 제안에 응했다. 이듬해 4월 66가구의 울진 사람들이 전쟁 이전 북한 땅이었던 DMZ 근방 버려진 땅 철원군 마현리로 군용트럭에 실려 간다.

그런데 천리타향 낯선 땅에 떨어진 지 12일 만에 4·19가 발발했다. 이 와중에 울진에서 엑소더스해 온 66가구에 대한 행정 서류 등이 없어지고 말았다. 새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는 왜 울진 사람들이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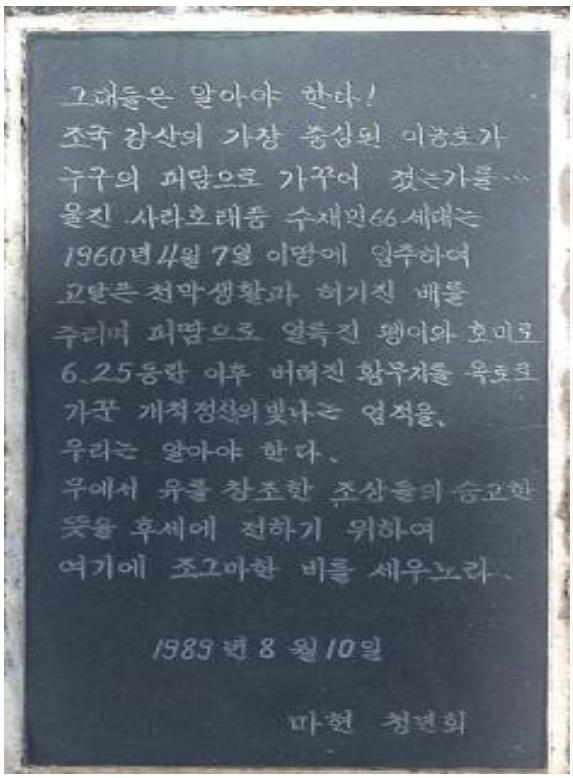
천막 하나로 바람을 가리고 생활하던 시절, 이들의 처지를 보다 못한 국군 장교 한 명이 쌀 한 가마를 주면서 밀주라도 만들어 군인들에게 팔아 보라고 제안했고, 이주민들은 야밤에 술을 '보급'하러 온 군인들에게 팔면서, 또 한켠으로 메마른 땅에 괭이질을 하면서 팍팍한 삶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땅을 개간하다가, 아이들끼리 뛰놀다가 툭하면 지뢰 터지는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갈갈이 찢긴 육신들이 철원 평야에 내동댕이쳐졌다. 그곳은 지뢰 반 흙 반의 지뢰밭이었다.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울진군 근남면 사람들은 지뢰투성이의 황무지를 강원도 최대의 옥토로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던 것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그 신산스런 세월을 이겨낸 동력은 오롯이 民人들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1959년 오늘 태풍 사라는 울진군 근남면에 있던 민인 들 가운데 359명을 철원군 근남면으로 엑소더스 시켰고 정부는 이들에게 군용막사를 제공한 뒤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뒤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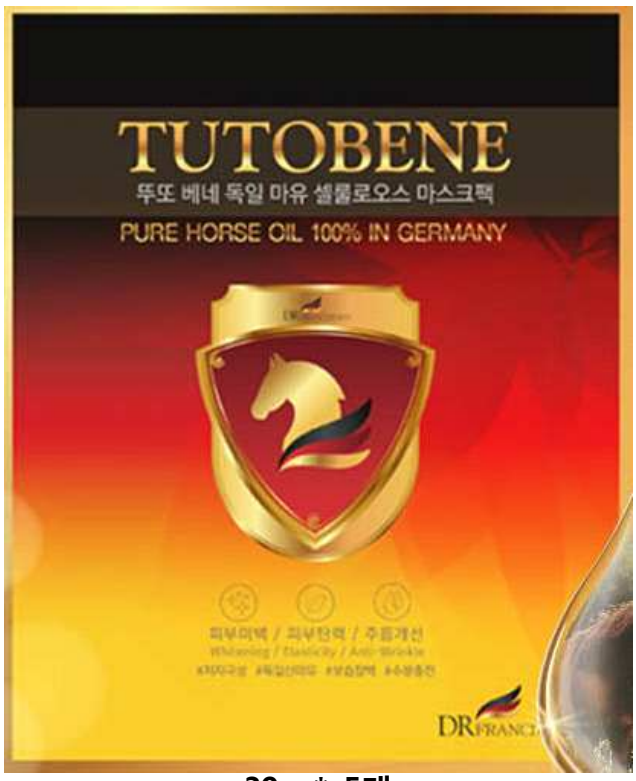


■ 도농상생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통증치료사로 활동중인 김진경 선생께서 생산하는 독일산 말기름 마스크팩을 시중가격과 달리 염가에 할인 판매합니다.

◎ 효능 : 피부 미백 및 주름개선, 보습유지에 도움을 주니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25g * 5매 >	 <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빌겠습니다.